

코리아PTG, 25일 PTMEG 재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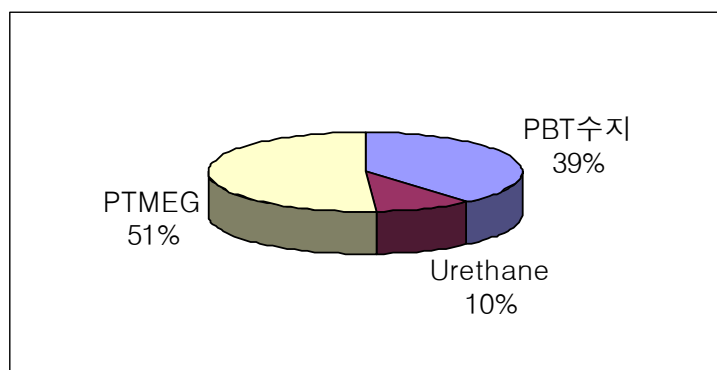
정기보수로 5일 Shot Down ... 스파덱스 시장활황 따라 수요증가

코리아PTG가 정수보수로 5월5일 Shot Down에 들어갔던 PTMEG(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 플랜트를 5월25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수는 촉매의 일부와 부품교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리아PTG는 생산하는 THF(Tetrahydrofuran)를 전량 PTMEG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 스파덱스 수요가 7% 정도의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PTMEG의 수요가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4년 4월에는 효성의 구미 스파덱스 공장이 증설을 완료해 2004년 수요도 2003년에 비해 5-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THF 수요비중



한편, 국내 PTMEG 생산능력은 코리아PTG와 한국BASF가 각각 2만5000톤, 3만톤이며 코리아PTG는 생산되는 PTMEG의 90% 정도를 효성과 동국무역 등 스파덱스 생산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5/24>